



2011 하반기 연속기획
문화정책대화모임

연속기획1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역할

일시 | 2011. 11. 29(화) 14:00-16: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11 하반기 연속기획
문화정책대화모임



연속기획1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역할

일시 | 2011. 11. 29(화) 14:00-16: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프로그램 Program

사회 |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인사	인사 및 대화모임 참석자 소개
14:10~14:30	주제발표	'지역예술가의 정의와 역할'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겸임교수)
14:30~14:40	토론자 1	장운섭 성남예총 사무국장
14:40~14:50	토론자 2	서정훈 성남민예총 기획위원장
14:50~15:00	토론자 3	이주희 극단 동선 대표
15:00~15:10	토론자 4	박종관 성남YMCA 사무총장
15:10~15:20	토론자 5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15:20~15:30	휴식	
15:30~16:25	종합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16:25~16:30	달 는 말	폐회

<목 차>

■ 주제 발표

- _발제 1. 창조도시를 위한 지역예술가의 역할
.....1
이 선 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겸임교수)

■ 토론 발표

- _토론 1. 지역에서 예술가(단체)의 활동과 역할
..... 7
장 윤 섭 (성남예총 사무국장)
- _토론 2. 지역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11
서 정 훈 (성남민예총 기획위원)
- _토론 3.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역할
.....15
이 주 희 (극단 동선 대표)
- _토론 4. 지역사회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9
박 종 관 (성남YMCA 사무총장)
- _토론 5. 공공문화재단이 기대하는 예술가의 역할
.....23
유 상 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주제 발표

창조도시를 위한 지역 예술가의 역할

이 선 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숙명여대 겸임교수)

1. 창조도시란?

- 창조도시 개념의 이해
-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인적자원 활용의 조화
- 지역사회의 변화와 공동체 구심



게이츠헤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볼로냐

3. 인식의 전제

- 각종 공간을 자산(property)이 아니라 자원(resource)의 개념으로 인식
- 하드웨어에 걸 맞는 유형별 프로그램의 기획과 활용
- 효과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마케팅 방안

→ 지역 문화기획자와 예술가의 리더십과 헌신의 필요

2. 이론적 배경의 이해

1) 찰스 랜드리 Charles Landry

- Creative City & Creative City Making
- 창조환경의 강조
 - 예술/문화의 창조적인 힘, 창조적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 창의적 사고, 창의적 계획, 창의적 활동의 유기적 체계
 - 개인 자질, 의지, 리더십,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창의적 조직문화, 지역 아이덴티티, 도시공공공간/시설, 네트워킹/연대구조 동태성

2) 리차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

- Rise of Creative Class / 창조계급
 - 창조계급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위한 도시문화/내적 성향
 - 창조계급들이 얼마나 도시산업구조에서 창의적 성과물을 내는가에 따라 도시성장이 좌우됨
 - 창조계급 : 새로운 노동문화, 라이프스타일 추구. 전문성/ 강도높은 업무환경에도 문화를 즐기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삶 추구. 건강, 여가, 교육 등에 관심 많음

3) 마사유키 사사키 Masayuki Sasaki

- 창조하는 도시
- 창조도시의 도전 / 자족적인 도시경제 시스템

- 자유로운 창조적 활동 -> 문화/산업의 창조성
탈대량생산,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
- 예술가, 창작자, 시민이 연계된 창의활동
혁신/창의적 산업 활성화, 환경문제에도 영향

4. 문화를 통한 지역의 실질가치 창출 전략

- 공간은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장소 특화적인 균형점의 도출
- 프로그램은 대상과 목적에 따른 전문성의 강화
- 관객 개발과 전문가 육성 및 2차 활용대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단계별 가치체계의 실현: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가치 구현의 로드맵
- 새로운 4Ps : People -> Place + Program + Promotion -> People

5. 지역문화 창출의 필요성 대두

- 지역문화 또는 지역예술이란 무엇인가?
- 당면한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 지역의 지리학적 인문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 지역문화인 또는 지역 예술가의 규범적 정의는 무엇인가?
- 지역의 역사성과 현재성이 아우러지는 가용 자원의 조사와 발굴(지역성)
-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프로그램 계획 수립(구성력)
- 지역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과 마케팅의 실천 방안(지속성)

6. 리스크의 관리

- 복잡계 성격의 지역내 역학관계의 파악과 인식
- 관계 배타성과 폐쇄성의 표출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역예술계의 소외감 및 피해의식

- 자원과 지원의 분배의 원칙의 불합리성
- 성과관리의 주도와 실패의 책임
- 스케일별 역할분담의 모호함: local-national-international
- 지역 내 시설이용의 주도권 충돌과 프로그램의 편중
- 관계자간의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 갈등과 반목의 표출에 따른 부정적 인식의 확산

7. 지역 예술가의 10대 역할 영역

1)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주체

지역민의 일상과 여가 및 교육 등 다양한 욕구의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교육 운영 등에 있어서 지역과 보다 밀착된 관계로의 장점 활용

예시: 문화사랑방클럽, 동호회활성화, 평생교육 등

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지역내 각급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예술강사 또는 특새 분야의 전문적 역량 제공을 위한 다양성 강화의 역할

예시: 학교문화예술교육, 방과후교실, 체험학습 등

3) 지역 문화시설과 창작공간의 활용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능동적 활용

예시: 지역레지던스, 공동 기자재시설, 전시공간의 확충

4) 지역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창조

지역 전래의 전통문화와 예술의 보존, 아카이빙 및 새로운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지원

예시: 지역민속보존, 전통문화계승, 전문가 활용 교육 등

5) 지역 기반의 행사에의 주도과 참여

지역기반의 축제나 주민행사 또는 전통 풍습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참여

예시) 마을축제, 주민의날,

6)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의 전문성

지역내 역사, 예술, 생활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의 문화적 접근과 방법론 연구

예시) 원형콘텐츠, 먹거리개발, 생활문화보급 등

7) 주민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주민들의 구심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매개로서의 문화예술의 활용에 있어서 예술가의 새로운 역할 부여

예시) 생활문화공동체, 주민공연단 등

8)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노인이나 다문화 저소득층 또는 특수한 환경의 주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예시) 사회문화예술교육, 다문화프로그램, 노인대상 프로그램, 재능기부 등

9) 지역산업과 마케팅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

지역내 주민들의 산업이나 대외교류와 홍보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 지역예술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

예시) 전통시장활성화, 커뮤니티비즈니스, 기업연계임직원 프로그램

10) 생태와 환경및 녹색 패러다임과 연계한 사회문화적 역할

도시 생태와 농어촌 지역의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예술연계 프로그램의 생산과 활용

예시) 생태교육, 도심걷기, 숲활용 및 힐빙학 프로그램 제공

토론 발표 1.

지역에서의 예술가(단체)의 활동과 역할

장 운 섭 (성남예총 사무국장)

성남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은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성남은 문화예술이 집중화 되어있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향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영역은 더욱 좁아져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경제 성장으로 다양해진 문화적 욕구와 대중문화에 잠식된 시민들과의 거리로 소통하려는 예술인들의 더 큰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적 고민에 앞서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에 대한 현실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술가들의 지역 역할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본 이면서도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기조이고 지역발전의 핵심은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보편적 인식에 비전을 갖고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매개자로서 지역 기관과 단체와의 관계 중심으로 두서없이 나열해 본다.

○ 성남지역 예술인의 이해

- 제2의 직업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현실
- 전문성은 있으나 창작의 부가가치 전무
- 기관의 기금과 보조금에만 의존
- 획일적이고 양적인 활동
- 집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흔들리는 예술가
- 문화재단 설립이후 지역 예술가들의 심리적 위축

○ 예술단체와 행정기관

- 민간예술 전문가에 귀기울이는 관의 수용적 태도와
- 관의 행정력을 존중하는 민간예술의 겸허한 태도의 조화

- 예술인들의 속성과 특성 이해 (자유로운 표현과 독립성-공공의 이익성)
- 예술의 혼용성 활동인정 (단체간, 구성원, 장르)
- 예술가와 단체 고유업무 추진의 다양성 인정
- 수치적 결과를 문화예술 치적으로 삼는 시스템 경계

○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단체

- 지역예술가 참여로 프로그램의 질도 높이고 생활도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기획의 전문교육
- 지역 현실의 반영과 지역에 맞는 예술정책을 발굴
-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확충, 예술가 지원제도 확대

○ 축제문화의 정체성 구축

- 각계의 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기구 구성
- 축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 대형 프로젝트의 창출보다 과정을 중요시 하는 시스템(Storytelling)
- 조사-분석-계획수립-공유 및 의견수렴-실행-평가

○ 예술단체들과 타 영역 지역단체와의 관계

- 지역단체 및 문화예술그룹의 관계설정
- 사업시행의 겹치는 영역 조율, 통합, 협력방안
- 자치센터, 복지단체, 사회단체 등의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 연령 및 계층별 특화사업(복지, 청소년, 교육 등)과의 연계
- 지역 공동체 문화정책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마련

○ 성남예총의 과제

-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종합문화예술제 프로그램 확대연구
- 지역의 타 영역 단체와 기업의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화 하여 자생력 강화

- 시민이 접근 용이한 소규모 공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거리예술 활성화
- 기관의 보조금에만 의존한 관습적 공연의 질적 변화
- 새로운 장르 혹은 장르와 융합된 장르(크로스오버) 창작의욕 고취
- 대중문화에 잠식된 시민들과의 간극을 뛰어넘어야 하는 예술인들의 과제
- 관객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예술가에게 전달방식의 쌍방향 소통
- 예술인들의 활동과 신진예술인들을 발굴, 육성, 그리고 예술정보 등을 교류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집약적 전문공간 확보

토론 발표 2.

지역예술인의 지위와 역할

서 정 훈(성남민예총 기획위원)

성남은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YMCA에서부터 노래마을, 그림마을, 도움소, 노동자노래패, 문학동아리등 많은 지역예술인들을 배출해 왔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올해로 30년 가까이 진행해 오고 있는 성남백중놀이 한마당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하나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서 저도 그 사례를 보려고 성남에 수차례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그후 10년정도가 지난 후 <우리소리연구회 솟대>의 연주단원으로 오게 된 것이 성남과의 본격적인 인연의 시작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남에 왔을 때에는 이미 예전에 활동해오던 선배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예술활동을 접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든지 아니면 타 지방으로 나가있었습니다.

예전에 느끼던 문화예술적으로 풍성해보였던 성남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여름 노래마을1기 가수 故권오원선배 추모 4주기를 맞이하여 “2011 바람개비콘서트”를 기획하게 되면서 지역 선배들을 한분한분 찾아가 만나게 되었는데, 성남에 대해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 몇몇 공직에 계신 선배분들은 이런 건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좀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선배분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여러해 동안 제안해왔던 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의 기획공모사업인 “중양시장 문화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와 수진동“칼라대문”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중양시장 상인분들이나 수진동 주민분

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성남에서 성남주민들과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떤분은 얼마전 자제분을 잃으셨는데 벽화를 보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고 하셔서 예술이 인생에 바짝 붙어있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칼라대문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미술작가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그분들의 근황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파워포인트도 배워야합니다. 디자인비용을 절감하려고 시작한 일러스트는 이제 당연스럽게 자기일입니다. 결과보고하려고 영상제작해보다가 이제 모든 영상을 스스로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이것저것 배워서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 창작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가 일년에 문서작성과 벽화 외에는 자기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성남문화재단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처음으로 가 봤을때 어떤 분이 본인이 좋아하는 말이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술가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예술행정은 그 꿈을 실현가능하게 한다.”

예술행정은 분명 전문적인 영역이듯 하더군요.

이번 우리소리연구회 솟대의 열세번째 정기연주회<변화와 소통의 기록 換에(환)>에서 이런 공연을 한번 해봤습니다.“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문굿, 비나리 그리고 성남판굿” 지역에 전문적인 역량의 예술가들과 앞으로 그리 하려는 후배들을 모아서 연습했습니다. 여럿이 상모를 돌리며 해야하는 공연인지라 좁은 저희 연습실에서 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연습 공간 찾아다니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성남판굿은 우리가 노력하면 점점 발전해 나가겠지. 하지만 그 결과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냥 성남의 것이다. 그럴 마음있으면 같이 해보자.” 다들 좋아하더군요.

이 두서없는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지역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신과 재능기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 주변의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스스로 자기 주변에 자기 재능을 가지고 공헌하며 살고 있습니다. 벽이 너무 허전하면 말 안해도 벽화 그리고 있고, 홍겨

워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알아서 장구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어려워 부업을 하다가도 사자춤이 적합한 자리면 차비도 안나오는데 춤추러 옵니다. 영업하는 가게 팽개치고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탈인형극 한다고 땀흘립니다.

최근의 정책이 예술가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안 된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이들을 잘 이끌어 들이는 것은 예술행정가들의 몫이 아닐까요?

예술행정가에게 있어서 민원의 대상은 예술가들이 아닐런지요?

성남아트센터에서 지역예술가 기획공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남시 4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문화예술사를 정리해 보는건 어떨까요?

지역대표축제를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토론 발표 3.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역할

이 주 회(극단동선 대표)

지역예술가는 문화실천가

지역에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술을 하는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무대공연을 하는 사람은 더 좋은 무대 , 더 멋진 연기완성을 위해 쉬지않고 노력하고, 시각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은 좋은 작품을 완성하기위해 고민한다.그럴때 많은 예술가들은 또 다른 고민에 싸이게된다. 수많은 사람들은 왜 굳이 성남에서 예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로 진출하면 더 좋은 비전과 많은 인맥을 이용하여 성공이라는 길이 있는데 고생을 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느냐고 반문한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성남에서 예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술을 하면서 후배양성에도 힘쓰게 되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예술가는 문화실천가라고 생각한다. 직접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통한 문화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술적 재능으로 사회에 문화나눔을 기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기도 한다.

지역예술가는 예술교육의 징검다리

지역 예술가로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교육이다.

예술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 어렸을때 많이 접했던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한다.

지역예술가는 예술분야 및 교육의 최신 경향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 예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예술교육 및 중,고등학교 계발활동 참여, 다문화가정,소외계층을 위한 순회공연등을 하면서 학습자,단체,지역사회등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다. 창작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예술로 소통하고 있다.

지역예술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지역예술가는 많은 공연 및 창작활동을 통해 시민과 많이 만나기를 소망한다.

성남아트센터가 완공되었을때 많은 예술가들은 꿈과 부풀었다. 지역예술인들이 이제는 성남아트센터라는 멋진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오픈이 되었을때 성남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손으로 꼽을 정도다.

수많은 기획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고 멋진 배너현수막이 거리에서 손짓을 해도 지역예술가들을 위한 자리는 일년에 한 두 번 정도이다.

이제는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지역예술가들에게 눈을 돌릴때가 된것같다. 초창기에는 성남아트센터 알리기와 이미지 부각으로 기획공연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가나 단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지역예술은 낯다는 인식을 이제는 깨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창작활동외에 문화예술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교육 운영 등에 있어서 과연 밀착된 관계로의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사업속에 지역 예술가들도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 창조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주체형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그 창조의 비전 속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속에 지역예술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활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그들에게 교육의 장을 연계해 준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생각한다.

토론 발표 4.

지역사회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박 종 관(성남YMCA 사무총장)

저는 대학 시절 탈춤을 통해 문화운동을 한 1세대 문화운동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선배, 동료, 탈춤, 민요 등 이전 시대의 박제화 되고 현 시대의 서민들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화들을 오늘의 삶의 언어와 표현으로 되살려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탈춤을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노동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대본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들이 ‘농촌가면극’,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작품(제목은 기어나지 않는다),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조선방직’, ‘원산총파업’ 등 다양한 작품들이 노동자들에 의해 직접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진 못했지만 저는 최고의 작품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열아홉, 스무 살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기계에 갇힌 노예에서 한 인간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이 노동과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의 사랑과 고뇌와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담아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상업 문화를 극복합시다.

예전의 전통문화들은 너무 박제화 되었지만, 오늘날의 문화들은 너무 상업화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문화상품의 소비자로서만 전락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문화상품들 속에서 진정 삶의 진솔함과 희망을 담은 작품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술 작품들이 자본주의적 상품시장의 경쟁 속에서 그저 대중들에게 빨리 팔리고 잊혀져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극히 말초적이고 감성적이기만 한 작

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잘 팔릴지에 대한 관심만이 있을 뿐 이 작품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화적 매체들은 너무나 다양해졌지만, 그 매체들 속에서 진정성을 담은 작품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없는 상태의 문화예술인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문화예술에 바쳐 고통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거창국제연극제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극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만, 웬지 작품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란한 춤과 노래가 어울어진 공연으로 즐겁고 신나기는 했지만, 오래 가슴에 남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한 두 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는 작품들이 아쉬웠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함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연극인에게 여쭙었더니, 전반적인 문화예술계의 인문학적 소양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인문학적 소양이란 지금의 시대와 개인과 삶의 현장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이 아닐까요? 그 성찰은 혼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얻어지는 걸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은 고고한 고독의 삶을 살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이웃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 속의 갈등과 만남 속에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틀거리를 짜 나가야합니다.

성남 지역 문화의 한심함.

환경의 날 행사 개막식에 트로트 가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지고, 나이트클럽의 무희들이 ‘어우동’ 섹시 춤을 추는 창피한 성남 문화의 현실 속에서 문화예술인의 책임은 없을까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만나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을 자신들의 작품의 소비자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 공동체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문화적 활동을 통해 표출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기정 문화예술인들의 기능을 따라할 뿐 정작 자신들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재능들은 상업주의 문화 속에 편입되지 못하면 사장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를 지역사회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다양한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일반 시민밴드동아리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연주하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촌 근처의 성미산마을공동체에서는 재작년에 마을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극장을 만들고 매주 청소년, 주부, 교사, 어린이들의 다양한 공연물이 그 극장을 통해 발표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의 공연물들이 모여져 큰 동네 축제도 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도 이러한 기초 물적 인적 자원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이제 문화예술인과 지역 시민단체, 지역주민 성남시 문화재단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주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해 연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을 꾀 봅니다. 문화예술인가 지역단체활동가가 동네단위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합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할 노래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주민들이 연기자이고 연주자이고 춤꾼이고 가수가 되어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갑니다. 문화적 소통을 만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토론 발표 5.

공공문화재단이 기대하는 예술가의 역할

유 상 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공공문화재단은 공공재원을 확보, 조성하여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공공문화재단의 정의에는 ‘공공’이라는 개념이 주된 인식과 시각의 틀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공공’이란 무엇인가?

‘공공’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주요하게 거론되는 해석은 ‘공공’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나’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들면 아마 독일의 한나 아렌트와 위르겐 하버마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사적’이란 단어, 즉, ‘private’은 원래 ‘박탈, 배제’의 뜻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공공(public)’이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공공기관이 하는 일이 모두 다 ‘공공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은 ‘공적이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 공공기관만이 ‘공적인 일’을 모두 다 담당할 없으며, 또한 독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국가건 개인이건 다른 사람, 즉, 타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공공’의 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민관의 ‘협치’라는 ‘거버넌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그동안 문화예술은 공공지원이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을 ‘공공재’로 보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여러 학자들이 ‘시장실패 구조’ ‘비용질환’ ‘후광효과’ 등 여러 이론들을 세련되게 만들어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최근에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분야 외에 타 분

야, 즉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법학 등 여러 다양한 학계에서 문화예술을 예전보다 좀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장들이 많았으나, 최근에 논의 중 흥미로운 것은 문화예술을 지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특히, 예술가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예전에도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으나, 최근에 주장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나름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문화예술의 위기일 수도 있다.

문화예술은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되어야 한다. 이 전제 자체를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으로 다루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논의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이다.

공공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공공적’이어 한다. 즉, ‘시민 모두에게 관계되고 열려있는 그리고 시민 서로가 관계 맺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착한예술’ ‘공동체예술’ ‘생활문화’ 등의 예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예술 정책이나 사업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공공미술, 공동체예술을 강조하는 이러한 환경이 예술가를 동네에서 벽화그리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가의 미학적 탐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위 ‘착한예술가’의 역할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만의 예술적, 미학적 탐구를 극한으로 끌고 가야 한다. ‘문화나눔’ ‘재능기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도 중요하다.

공공문화재단은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문화재단의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 지원은 ‘공공적’임을 전제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적’이라는 것이 ‘타인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통의 것’이라고 한다면 공공영역의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는 ‘공적’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적인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의 역할은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나 행사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적인 예술’은 반드시 대중예술이나 민중예술, 또는 생활예술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술가가 타인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관계맺기를 박탈당하지 않고, 역으로 타인을 배제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박탈하지 않고 사람과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며 이를 예술적 탐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예술을 펼쳐나가는 것이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의 공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술은 ‘착한 예술’ ‘착한 예술가’와는 다르다고 본다. 어쩌면 이것이 예술의 본질이며 예술가의 역할이 아닐까?

대부분의 예술가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분분투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많은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의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예술가를 타인 또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 공적인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데 개선 노력과 그 결과는 매우 미진하다.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일이 모두 공적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예술과 모든 예술가 지원이 공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공공문화재단에게 공적인 예술은 최우선 과제다. 공공문화재단은 공적인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한다.

공공문화재단으로서 성남문화재단은 공적인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한다. 사랑방 문화클럽네트워크사업,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통화사업,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목적도 공적인 예술과 예술가를 지원한다.

‘착한 예술’ ‘착한 예술가’, 그리고 ‘나쁜 예술’ ‘나쁜 예술가’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적인 예술, 공적인 예술가인가 이다. 이것이 성남문화재단이 기대하는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이다.



2011 하반기 문화정책대화모임 연속기획 I

'지역에서의 예술가의 역할'

발 행 인_ 안 인 기

편 집 인_ 하 동 근

기획총괄_ 박 승 현

기획진행_ 유 상 진

발 행 처_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sncf.or.kr / www.snart.or.kr

디자인/인쇄_ 맥스커뮤니케이션

발 행 일_ 2011. 11

© 성남문화재단

